

착한 목자	천주교 싱가포르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fice Blk A3-7, 98 Hougang Avenue 8, S538791	주임신부: 박재우 사도 요한 사목회장: 최 수 사도 요한
------------------	---	------------------------------------

☎ 사제관: 6925-7873, 사무실: 6288-9771, 팩스: 6288-9551, <http://cafe.daum.net/kccsg>

주 일 미 사	주일: 오후 2시(대성전) 토요일 주일미사: 주일학교 방학기간 없습니다.	주일 학교 (토)	유초등부 : 방학(5/24~8/21), 개학일 8/22 중고등부 : 방학(5/24~8/21), 개학일 8/22
	*매월 마지막 주는 가정 주일로 토요일 미사가 없습니다.	예비신자 교리	주일 12시 30분
평 일 미 사	시간: 화/오후 7시 30분, 수~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소성당	고 해 성 사	평일: 미사 전 후 고해실(A2-8) 주일: 미사 30분 전 성전 고해소.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 있는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모시는 이 미사에 기쁘게 참여하며 우리도 주님 안에 깊이 머무르는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6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가 문화 간, 국가 간 평화와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고, 존중과 연대와 인격 성숙과 같은 가치들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미사 시작 전, 예수성심성월 기도 바칩니다. 예수 성심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인간적 신적 사랑을 드러냅니다. 신자들은 예수 성심을 공경하고 묵상함으로써 기도와 희생, 보속으로 그 사랑에 응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일학교가 두달 동안 방학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토요일 미사는 없습니다.

6월 사목평의회 6월 7일(주일) 미사후, 장소는 A3-6입니다.

6월 기쁨의 샘 꾸리아 월례회의(제347차)

6월 21일(주일) 미사 후 3시 15분, 장소는 소성당입니다.

독서팀 모집 안내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할 독서자를 모집합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길기은 크리스티나 (☎ 9012-0578)

빈첸시오회 후원을 기다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움 주신 후원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도움을 청하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도와줄 힘만 있으면 망설이지 말아라. (잠언 3:27)

* 문의 : 빈첸시오 회장 이영학 시몬(9619-6683)

* 후원 계좌 : PARK JAEWOO OCBC 543289292001

인터넷 교리 안내

예비자 교리 <http://school.catholic.or.kr/cte/roompass.asp>
견진 교리 <https://school.catholic.or.kr/3217e>

*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사제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5월31일)

주일헌금 \$1,975.70.

세계청년대회(WYD) 2차헌금 \$715.

감사헌금 배준오 미카엘 · 이세연 율리안나 \$300,
오민경 안젤라 \$100.

교무금 내신 분 (5월 30일 ~ 6월 5일)

강희주 비비안나 6월, 권지영 프란체스카 6월, 김경숙 아니타 6월, 김동훈 빈첸시오 6월, 김정환 그레고리오 6월, 노일선 가브리엘 6월, 박상현 안드레아 6-8월, 박진영 헬레나 5,6월, 박철 베드로 1-12월, 심대용 안젤로 4-12월, 유동완 베드로 4-12월, 이민희 마리안나 4월, 이은하 세실리아 6월, 이지윤 아녜스 6월, 임호섭 펠릭스 6월, 전연경 낸시 6월, 정아브라함 사도요한 6월, 조주현 바오로 5월, 황성욱 세실리아 6월. ■ 19세대 \$6,650.

◆ **교무금 감사헌금 입금 계좌: DBS 113-008886-3 PARK JAEWOO**

* 온라인 송금시 **입금자 이름, 세례명을 꼭 같이 적어주세요!**

사무실과 소성당 이용 시간

평일 : 화요일 오후 6시 ~ 9시,
수, 목, 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점심시간 : 12시~1시).
토요일 : 오후 1시 ~ 8시, 주일 : 12시 ~ 5시
*주소 변경이나 귀국할 때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참여자 수(지난 주)

5/31(일)	평 일			
	2:00	3(수)	4(목)	5(목)
213	15	35	20	26

* **봉헌 가족** : 강경희 켈마 · 안진희 안젤라

* **소공동체 모임일정(6월8일 ~ 6월14일)**

· 6월 10일(목) 19:00 1구역 4반 Terren Condo Function room

▣ **교무금 현황(2026년 5월말 기준)**

책정률 26.10%(148/567세대), 납부율 17.64%(99/567세대)

저 자 씨

◆제1633호◆

Korean Catholic Community, 1259 Upper Serangoon Road, Singapore 534795 Tel: 6288-9771 Fax: 6288-9551

2026년 6월 7일(가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순례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아기예수>
1678년경, 캔버스에 유채
부다페스트 미술관, 헝가리

입 당 송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제 1 독 서 신명 8,2-3.14ㄴ-16ㄱ <하느님께서서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몰랐던 양식을 먹게 해주셨다.>

화 답 송 
예루살렘 아주 - 님 - 을 찬 미 하 여 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빛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 2 독 서 1 코린 10,16-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부 속 가 주보 2면에 있습니다. (21절-24절)

복 음 환 호 송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 음 요한 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오늘의 성가 입당송: 164 봉헌: 211 · 215 성체: 163 · 188 파견: 169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성산 갈바리아의 성 십자가 본당



매년 이맘때가 되면 처음 성체를 모시던 날을 떠올립니다. 열심히 첫영성체를 준비하던 저희에게 교리를 가르쳐주시던 수녀님께서, 처음 성체를 모시고 바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꼭 들어주신다고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저는 신부님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삽니다.

귀국 후 이곳 성산 성당에 와서 지낸 지 어느덧 4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어려움이 많았던 본당에 경험 없는 본당 신부가 부임하여 여러 사건·사고들도 겪어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소가 많은 본당이라 매주 12~13대 정도의 미사를 봉헌하고, 몇몇 교구 일들을 병행하며 본당 설립 50주년과 성전 신축 준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요즘입니다. 스트레스받을 만한 일도 적지 않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낼 때도 많지만 다행히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 미사가 많은 덕분에 자연스럽게 자주 모시게 되는 성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찬례를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 (교회 헌장, 11항)이라고 가르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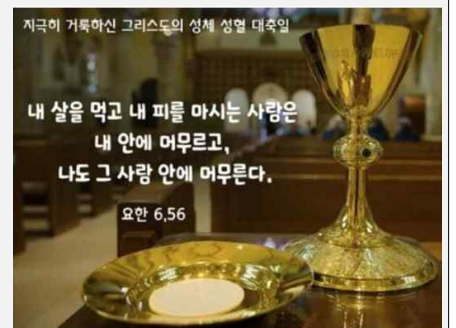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잘 걸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의 원천이며 정점은 성체성사입니다. 본당의 열심히 신자들과 비교하면 기도를 딱히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 것도, 요즘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성체는 더 자주 모시며 삽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트리엔트공의회,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관한 법규들 제1조, DS 1651)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일치되는 그 시간 덕분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그래도 사제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체성사의 무한한 풍요로움은 이 성사를 부르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에게 나타낸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8항)고 하였습니다. 성체성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행위이며(Eucharistia, 성찬례, 감사제), 천상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는 빵 나눔이며,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친교의 시간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8~1332항 참조). 육적으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라 너무 잘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일이 오히려 많지만, 영적으로는 아사 직전 상태로 연명만 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굶주린 우리 영혼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더 자주 모십시다.

◆ 부속가 ◆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빵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성물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어느 날 찾아 들어간 유튜브 사이트 첫 페이지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보였습니다. ‘성물-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1부-언약’ 길이가 좀 되는 영상이었지만, 인상 깊게 다가오는 마중 그림에 마음이 끌려 영상을 시청했지요.

영상의 주인공은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로 곧잘 손꼽히는 나라 에티오피아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첫 장면은, 정교회의 신자이면서 사제를 꿈꾸는 13살 소년 크브롭이 아찔한 압박을 맨손으로 등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소년과 그 가족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곁에서 바라볼 수 있었지요. 척박한 땅과 잦은 내전의 폭력의 굴레 속에서 좀처럼 벗어날 길 없는 가난의 무게에 허덕이는 그들이었지만, 그 가족들은 한결같이 행복하다고 고백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기도의 중심에서, 저무는 해를 배웅하며 바치는 어린 소년의 기도가 잔잔하게 마음속에 젖어 들어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불평할 것도 없어요. 오직 감사드릴 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임에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니 감사드릴 뿐이라는 기도가 제 가슴에 박혀 왔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언제부터인가 속이 울렁

대더니, 결국 그 기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4부까지 제작된 ‘성물’이라는 영상물은 한국방송(KBS)에서 공사 창립 기획으로 얼마 전에 방영한 것이었습니다. 2부의 부제는 ‘초대’ 이고, 우리 가톨릭교회의 믿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것으로 알려진 성의(聖衣)를 소개하며 시작하지요.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의 감동을 위해,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느꼈던 감동과 의미에 함께 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소박하고 진심 가득한 믿음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큰 기쁨 역시 같이 누릴 수 있겠지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을 위로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아래의 QR코드는 1부에서 4부까지의 전편 모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z9qhZNb644>



궁금해요!!

미사에 늦었는데 영성체할 수 있나요?

Q. 지난 주일에 그만 미사에 늦게 간거예요. 영성체할 때 ‘과연 모셔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체를 받아 모시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A. 사실 미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례하여 영성체하는 것이 온전히 참례하는 방식이지요. 그러나 미사에 처음부터 참례하지 않았다 해도 영성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기 마련이죠. 영성체는 미사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한 형태지요.([『전례헌장』 55항 참조). 그래서 미사에 ‘조금’ 늦더라도 영성체는 할 수 있습니다.

Q. 적어도 ‘이때부터는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A. 미사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뤄지지요. 전례헌장에 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 (56항)고 나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말씀 전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오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말씀 전례 중간에 온 경우에도 영성체를 꼭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양심의 문제니까요.